

#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

## 인간이 죽으면 종교가 될 수 없다

인간 속에 종교가 있는 거죠? 인간이 죽기를 싫어하죠? 인간이 죽지 않는 몸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바로 종교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 인간이 죽지 않는 것이 종교지 인간이 죽으면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죠? 인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참다운 종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참다운 종교라는 것은 영생을 이루는 것이 종교인고로 영생을 이루지 못하고 다 죽으면 그건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씌어 있죠? 성령이 하나님인고로 사람더러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 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구원을 얻지 인간은 구원 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 하나님이 되는 방법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이 기록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요, 인간의 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인간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장 하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 가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의 종교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자체를 알아,

몰라? 모르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 는 자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상의 구 원론 자체도 알지 못하고 있죠?

또한 이 세상 종교들은 인간 자체가 어떠한 실체라는 것을 알아, 몰라? 모르고 있죠?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 간 자체는 원래 하나님의 신이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 종교들은 인간 자체가 신이라는 것 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므로 이 세상 에는 종교가 없다고 하는 거죠? 종교라는 것은 바로 인간 속에 종교가 있는 것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이 종교요 인간들이 죽지 않는 몸으로 이루어 져야 그것이 종교이거늘 오늘날 인간들이 죽지 않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이 세 상 사람들이 알아, 몰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 인간이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의 목적이 무엇인 줄을 알아, 몰라? 그걸 모르고 있죠? 인간으로 하여 금 하나님의 신으로 바뀌지는 역사가 종교 역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식인고로 원래 하나님이었던고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 역사라 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는 에덴동산을 회복한다는 말씀 이 기록되어 있죠? 에덴동산을 무엇 때문 에 회복하느냐? 이것은 바로 에덴동산은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자는 하나님인고로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역사가 바로 종교 역사라는 것을 이 세상 종교들은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인간들이



구세주 조희성님

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이것 자체도 알아 몰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었던고로 원래 하나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인 간의 사는 목적이요 이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인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참다운 종교가 있어서 그래요. 참다운 종교가 없어서 그래요? 참다운 종교가 없었던 고로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떠한 길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는 구원론이 기록되어 있기를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성령 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안에서 행 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

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나 오늘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많 지만 이 구원론 자체를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없죠?

## 구세주는 6000년에 나타난다

또한 이 성경은 구세주가 언제 나타나 는지, 구세주가 몇 년도에 이 세상에 오는 지 기록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봐도 성경 의 뜻을 알아, 몰라? 모르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일을 하시고 이레 되는 날 쉬신다고 말씀 하셨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짝이 있다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씌어 있죠? 그래서 우리 가 짝이 되는 말씀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 와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옛세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 시고 이레 되는 날 쉬셨다는 말씀은 바로

옛세면 하루가 천년이니까 육천년이죠? 육천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 씌인데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 시지 하나님이 세상 일을 할 리가 없죠?

## 구세주는 새벽별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므로 에덴동산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야 삼 위일체 하나님을 회복해야 에덴동산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회복하려면 구세주가 나와야 돼, 안나와야 돼? 구세주는 승리자야, 실패자 야? 구세주는 승리자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어야 바로 구세주가 되는 것이요 승리자가 된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이제 그대로 인간 중에서 승리자가 나올 수 있 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신이 마귀와 더불어 육천년간 싸우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된거죠? 하나님이 승리자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감로 이슬성신을 내 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백합 화같이 피겠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 슬과 같으리니 그랬죠? 이스라엘이란 말 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긴자인 고로 이긴자에게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 내린다는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 이슬이 내 리는 이긴자가 바로 백합화 같이 핀다고 말씀 했으니까 바로 백합화는 구세주 라는 사실이 찬송가 가사 속에 나타나 있 는 거죠?

“구주는 산곡에 백합 명량한 새벽별 만 인 위에 뛰어 나시는 줄세” 구세주는 백

합화요 명량한 새벽별이라고 이 찬송가 가사에는 있죠? 이슬성신 내리는 이긴자 가 백합화라고 호세아서 14장 5절에 씌 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자에게 이 슬이 되어 내리는 데 바로 이슬이 내리는 이긴자가 곧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주는 산곡의 백합 명량한 새벽별 밝은 별의 이름을 가지는 자가 또한 구세주란 이 소리 죠?

이와 같이 찬송가 가사에 기록되어 있 는 것을 만날 이 찬송가 부르면서 그 사 람들이 이 뜻을 알아, 몰라? 왜 모르냐 하면 마귀신이 들려서 모르죠? 그러므로 분 명히 구세주는 백합화요 밝은 새벽별이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고로 그러고 로 만인 위에 뛰어 나는 줄세 라고 하는 말이 구세주는 만인위에 뛰어 나는 주님 이요 만인위에 쫓겨 주님이요? 뛰어 나는 주님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찬송 가 가사에 분명히 이제 구세주는 백합화 요 밝은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구세주라고 분명히 가르켜 주고 있는데 도 만날 이 찬송가 부르면서도 몰랐던 그 사람들은 마귀 한테 쫓겨서 몰랐던 거죠?

## 구원은 이슬성신 내리는 구세주 안에 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바로 구세주 안 에 있는 거지, 구세주라는 것은 바로 감로 이슬성신 내리는 자가 구세주지, 구세주 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세주가 보통 인간의 몸을 쓰고 있으니까 인간인 줄 알았다면 큰 코 다쳐요. 아시겠어요. 한국 사람은 큰 코 없었지만. 큰 코 다친다는 말은 바로 큰일 난다는 소리죠? 큰 일 난다는 게 뭐야? 죽는다는 거지. 사람이 큰일 나는 건 죽는 거 이상은 없어요.\*

2002년 1월 7일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3장 야곱의 하나님》



# (6) 세일 산자락에 에돔 부락을 이루고 족장이 된 에서

## (6) 세일 산자락에 에돔 부락을 이루고 족장이 된 에서

길르앗산지 남쪽 흐트머리로 내려온 야곱이 압복강까지 이르자 천사들이 야 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천사들을 보고, “아, 저것은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하고 마음 든든했습니다.

행 에서의 노여움을 두려워 서로의 만 남을 주저하던 야곱은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곳을 마하나임이라 고 부르고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150킬 로미터 서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로 보냈 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다(창32:1)

“브엘세바에 계시는 부모님 이삭과 리 브에게 소식을 전하고 행 에서의 근황 을 살펴보고 그에게 예의를 갖추어 하고 정 성을 다해서 마음을 사도록 하여라. 혹에 서 형이 처갓집에 가 있다고 하면 그곳까 지 찾아서 안부를 전하여라.”

야곱의 종들이 브엘세바에 도착하여 고즈넉한 이삭의 천막을 찾아들어갔습 니다. 늙으신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있었 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처 마할랏과 리브 가의 유모 드보라가 그 노부부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이자 에서의 처 마할랏은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 는 시아버지의 지팡이를 노릇을 하는 참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리브가 어

머니의 몸종이었던 여중 드보라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딸 리브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종들이 그들에게 인사를 드리 자 모두 만가지 않는 듯 말문을 열지 못한 채 여러동정할 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들은 리브가는 당장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매우 탄식하 였습니다.

야곱의 종들이 에서의 안부를 묻자, “에 서는 자신의 처 유딧과 함께 세일산으로 내려가서 에돔 부락을 이루고 거기서 족 장으로 있네.” 하고 리브가가 대답하였습 니다. 에돔 부락은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에 롯의 가 족들이 천사들의 팔에 이끌려 피난한 사 해 남쪽 소알 부근이었습니다.

종들이 주인 야곱의 명을 좇아 에돔까 지 가서 에서를 찾아뵈겠다고 하니, 리 브가가 만류하면서 아직 에서의 노가 풀 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서의 처 마할랏이 “언제까지 두 형제가 원수로 지낼 수 없지 않겠습니 까?” 하고 마할랏 자신이 야곱의 종들을 대신하여 남편 에서를 만나 야곱 도련님 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리브 가는 며느리의 말에 눈시울을 적시며 고 맏다고 애정을 표했습니다.

야곱의 종들이 “이제부터 야곱(Jacob) 도련님이라고 부르시 않아도 됩니다. 서 방님이 되신 것입니다. 주인께서는 라

반의 두 딸을 얻어 열한 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기쁜 소식 을 전했습니다. 그제야 온 가족이 에서 (Esau)의 일로 근심하던 것을 잠시 잊고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동남쪽 60킬로미터 쯤에 있는 에돔 부락까지 야곱의 종들은 마할 랏을 낙타에 태우고 호위하였습니다. 에 서는 에돔까지 자신을 찾아온 마할랏을 매우 반겼습니다. 그는 평소 이스마엘을 존경하였기에 게다가 이스마엘의 딸 마 할랏을 그의 아내 이전에 하나님을 신실 히 섬기는 여인으로 보았기에 껍듯이 예 의를 다해서 대했습니다. 한때 에서가 에 돔 부락의 부족장이 되어 마할랏을 에돔 에 데리고 와서 호감살이시켜 주려고 했 지만, 마할랏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아버 지 이삭을 모시게 허락해달라고 간청했 습니다. 그때 에서는 아내의 의사를 존중 하여 그대로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마할랏은 남편 에서에게 말하였습니다.

“시해 북단에 있는 압복강변에서 야곱 도련님이 형님의 너그러운 보살핌과 은 혜를 기다린다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마할랏의 말을 듣자마자 에서의 안색 은 굳어지면서 노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 였습니다. 에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종 에게 명령하여 서둘러 장정 400여 명을 모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할랏이

크게 상심하여 그 자 리에서 털썩 주저앉 았습니다. 에서는 부 인을 일른 일으켜 세 우면서 “너무 걱정하 지 마오.” 하고 다소 누그러진 마음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마할랏은 인적이 드 문 길에서 기다리 고 있던 야곱의 종들 에게 달려갔습니다.

“나의 남편이 장정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 도련님에게 가려고 합니다. 시해 동 편에 나 있는 지름길로 그들이 가고자 하 니, 여러분들도 이 길로 그들보다 앞서 속 히 가세오. 그리고 지금 제가 야곱 도련님 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나의 남편 에서는 어렸 을 때 배란 광야에 자주 놀러왔는데 그때 나의 아버지 이스마엘은 조카 에서를 무 척 귀여워하고 사랑해주었습니다. 어릴 때에 사랑을 받은 감정이 깊게 녹아있는 남편 에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주변의 어린이를 무척 아끼고 함께 사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런 남편 에서의 성향을 잘 헤아리어 야곱 도련님이 먼저 나서서 만날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와 아내를 앞세워서 맞이한다 면 서로 아무런 탈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 다.”



마할랏이 남편 에서를 만나다

그리고 마할랏은 다시는 브엘세바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에서가 마 할랏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동생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에 돌아 오게 되니 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게 될 것 이요 이제부터 당신과 당신이 낳은 아들 루우엘과 함께 여기 에돔 부락에서 나와 같이 살아야 하오.”

이스마엘의 딸이자 에서의 아내인 마 할랏은 에돔 부락에서 살면서 아들 루우 엘이 장성하여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루우엘이 낳은 나핫과 세라와 삼미와 미사 등 네 명의 손자를 보았지만, 마할랏의 마음은 기쁘 지 않았습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마할랏은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이방 풍습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 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이스마엘의 하나님 께 간구하였습니다.(다음호에 계속)\*

안젤라